

# 호남대, 산학협력 호남·제주권 최고대학 '우뚛'

### 링크플러스 4차년도 평가...사업비 5억5천만원 증액 맞춤형 인재 양성, 900개 가족회사와 동반성장 견인 전교생 AI융합인재 양성...국내 유일 AI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이하 링크플러스)사업 4차년도 평가에서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호남대학교는 지난해 37억 9천만원보다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4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올해 지원받는다.

링크플러스는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에 이어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방정부와 산업체,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애로사항 해결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해내고 학생들의 취·창업율을 제고하는 지·산·학(地產學) 협력 사업이다.

광주지역 유일의 교육부 선정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학교는 그동안 지방대학 특성화(CK-1), 프라임(PRIME), 링크플러스(LINC+),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사업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링크플러스사업을 통한 맞춤형(실무형) 인재양성과 취업률 제고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학협력의 선도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900여개의 가족회사와 긴밀한 산학협력을 추진해 온 호남대학교는 지역의 3대 특화사업인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ICT 융복합을 통한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미래자동차CC, 에너지신산업CC, 문화콘텐츠CC, 인공지능CC를 통해 기업집중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산기업주최의센터 운영을 통

해 매년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산·학(地產學) 협력활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업종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주치의들과 함께 경영·기술·금융·마케팅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

장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호남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AI특성화대학을 선포하고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전교생에게 AI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개의 AI전용강의실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트레이닝 키트, 고성능 답라닝서버 등 최첨단 인공지능 교육 시설을 갖추는 등 전교생 AI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AI캠퍼스 구축도 완료했다. 정부의 'AI국가전략'과 광주광역시의 'AI중심도시'에 발맞춰 AI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창업은 물론,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호남대학교는 4차산업혁명과 AI시대를 맞아 AI 대한민국, AI중심도시 광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키우는 AI특성화대학으로 우뚛 서게 될 것"이라며 "AI인재양성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16일 학교 학생회관 취업·학생지원처에서 신문방송학과 김병곤 동문이 기탁한 후배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 가운데 최병진 신문방송학과장(왼쪽 첫 번째)과 윤홍상 취업·학생지원처장(오른쪽 첫 번째)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대 김병곤 동문, 개교 40주년 발전·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

### "자랑스러운 신방과 후배들 학업 열중하는데 작은 보탬 됐으면"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신문방송학과 김병곤(87학번) 동문이 호심학원 창설 50주년과 학교 개교 4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과 후배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대는 16일 학교 학생회관 취업·학생지원처에서 윤홍상 취업·학생지원처장과 최병진 신문방송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곤 동문이 기탁한 후배장학금을 박

나혜(4년)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했다.

김병곤 동문은 "자랑스러운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후배들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개교 40주년을 맞은 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병진 신문방송학과장은 "미래를 이끌 어갈 학생들을 위해 선배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장학금이다"면서 "선배들을 본받아 졸업 후에도 학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광주대에 동문과 교직원, 지역사회의 발전기금과 후배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 남약신도시 고교 설립 추진 시동

### 고교 이전·재배치 검토...18~24일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른 고등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원도심 기존 학교를 인근 남약신도시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16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약신도시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라남도 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1차로, 도교육청은 원도심 기존 학교 한 곳을 남약신도시로 이전·재배치하는 안을 마련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18일부터 24일까

지 7일 간 목포시와 무안군 소재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는 온라인(링크를 통한 웹조사, 모바일 QR코드 접속 가능)을 통해 진행되며, 학교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탑재하고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추진 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되며,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남약신도시 내 일반고 신설 수요에 대처하는 등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유입 학생의 적정배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2020년 제1회 검정고시 전남교육청, 합격자 483명 발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의 합격자를 1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5월 23일 시행한 이번 시험에서 초졸은 51명이 응시, 47명이 합격해 92.1%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중졸은 111명이 응시, 97명이 합격해 87.3%의 합격률을, 고졸은 473명이 응시, 339명이 합격해 71.6%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65세, 중졸 63세, 고졸 79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2세, 고졸 13세이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16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정보공개/시험정보/합격자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